

이은무 선교사 선교 칼럼 (12)

[23 년 동남 아시아 선교 탐방기 3]:

필리핀의 어린이 추수 감사절



서규석 목사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친구이다. 비록 5 세가 위이지만 늘 친구로 대해 주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가르쳐 준 귀한 분이다. 친구란 평안하고 비밀이 없으며 상호 희생적이며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요한 15:13-15). 때문에 오랜만에 이루어진 이번 친구와

동남아 선교 여행은 즐거웠고, 참된 힐링이고 솔직함이 묻어 있는 여행이었다.

그의 필리핀 사역을 지금부터 31 년전부터 시작이 된다. 필리핀 남반부의 민다나우 섬의 머시빌(Mercyville)이란 곳에 이슬람 반군과 정부군의 긴 싸움으로 생겨난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월드비전이 운영하던 고아원을 문을 닫게 된 것을 인수하여 고아원이 아닌 '어린이 집' (Children Home)이라고 명명을 했다. 그 이유는 부모 없는 어린이가 아니라 부모를 만들어 주어 가정을 꾸며 준다는 생각에서 5-7 명씩 짝을 만들어 각각 주택을 마련하여 주고, 사명이 있는 훌륭한 보모들을 두어 저들을 보살펴 주도록 했다. 저들은 아이들의 신앙 지도는 물론 각가지 삶의 교육과 필요를 채워주는 마치 부모와 같은 사명 있는 보모들이다. 때문에 아이들을 밝고도 활달하게 성장하게 되어 경내에 있는 유치원을 나와 초등, 중고등, 그리고 대학까지 나와 사회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서규석 목사의 말에 의하면 저들은 고아가 아닌 사회 일원으로서 성장하여 티없어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숫자를 제대로 케어를 해 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지금 머시빌 어린이 집에는 19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를 원치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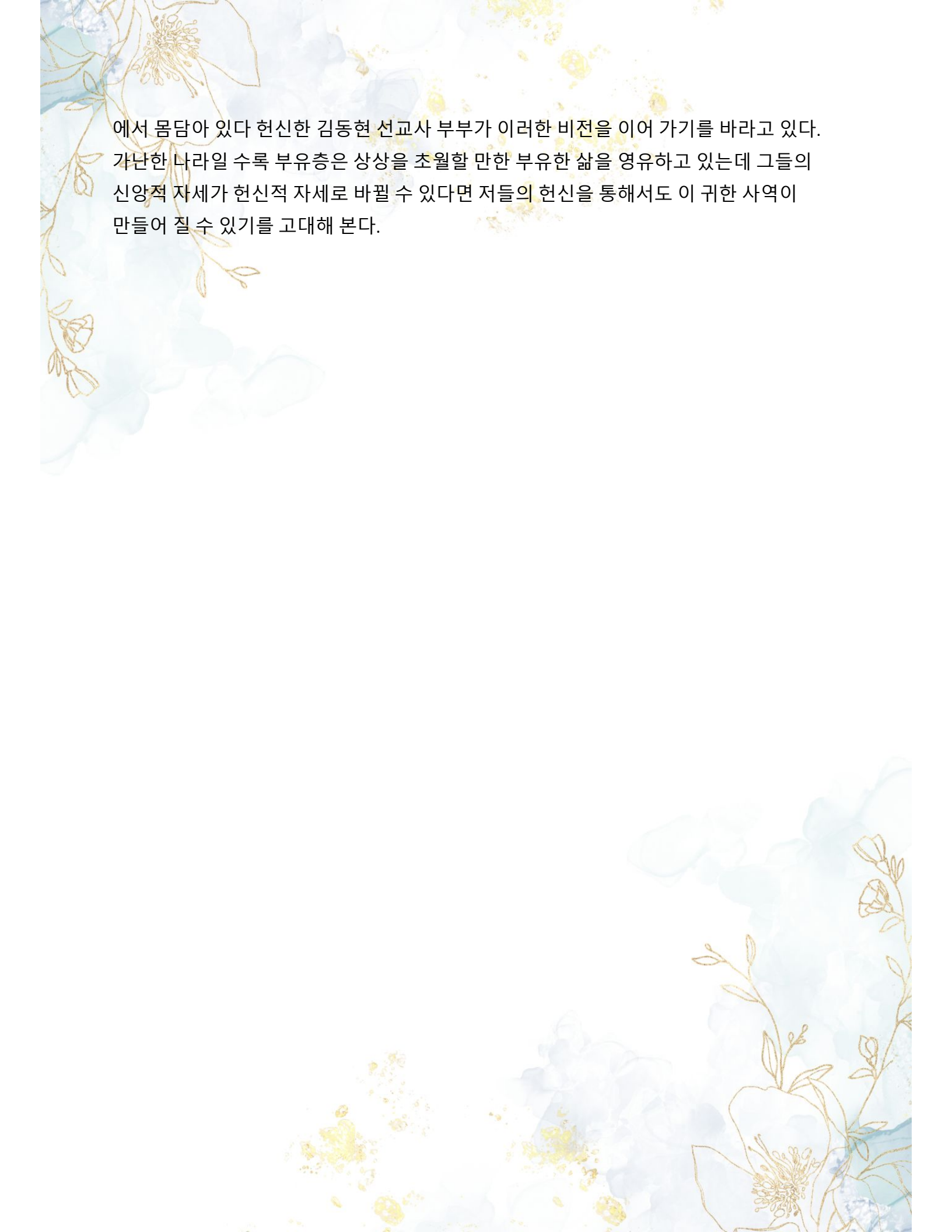
이 머시빌 어린이 집 넓은 터에는 풍성한 열대과일이 맺어져 있다. 팡파야, 망고, 두리안, 람보단, 망고스틴, 잭푸르트, 아보카도, 파인애플 등 수도 없는 열대과일이 풍성하게 달려 있었다. 토지가 좋아 심기만 하면 크게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제공한다. 매일 아침 식사는 어린이 집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준비한 음식과 과일로 그야말로 과일천국이 필리핀 머시빌 센터이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들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먼저는 교회 건축을 지원하고 있다. 머시빌 어린이 집도 각 가정의 주택은 물론,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워주었고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로 추수감사절 행사를 치루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기 그지 없는 마을들에게는 교회당 건물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주형근 목사)가 제공한 재원으로 마련한 예쁜 교회당을 자부심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미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 한 가지 지원은 쌀을 사 주는 것이다. 농촌 사람들에게 쌀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난센스 같은데 농촌 교역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저들은 만성적으로 쌀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그 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배고픈 5000 명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이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감사절 행사에 쌀을 제공한 것이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몇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으며 향후 선교적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교회들이 선교의 직접참여를 하게 될 때 선교관리가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있지만 꾸준성과 관계성만 유지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비록 그곳에 머물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선교지를 자주 방문하여 관계를 맺고,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인식하면서 제공하되 저들의 수준에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고 친분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무려 30년 넘게 지원하면서 늘 좋은 친분가운데 만들어진 프로젝트로 국경을 초월한 가족적 분위기를 보게 된다. 한편, 교회 건축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때 어려운 점은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랜 세월동안 교제를 통해서 맺어진 인연은 가족 그 자체이다.

머시빌 센터는 이제 어린이 집, 유치원 규모를 떠나 초 중등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터를 마련되어 있어 기독교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말씀 교육이 필요한데 교역자들을 위해 재 교육 센터가 되도록 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삼성 회사에서 오랫동안 해외 지사



에서 몸담아 있다 헌신한 김동현 선교사 부부가 이러한 비전을 이어 가기를 바라고 있다. 가난한 나라일 수록 부유층은 상상을 초월할 만한 부유한 삶을 영유하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적 자세가 헌신적 자세로 바뀔 수 있다면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도 이 귀한 사역이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